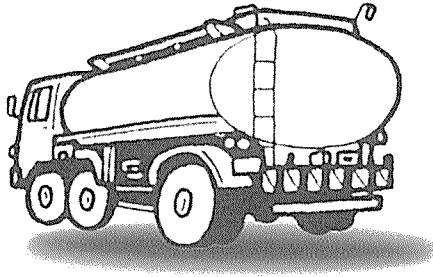


"유류유출사고를 방지합시다"



정

부는 날로 악화되는 팔당호등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앞으로 유류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출유류 방제 체계를 세워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유류유출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의하면 유류를 저장·취급하는 시설물의 주변에 유류유출 방지턱을 설치하고, 부지내 배수구의 최종방류구 이전에 저류지·유수분리장치를 설치하여 유류의 외부유출을 막고, 유류의 저장시설 및 배관설비에 대한 노후·부식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류의 자동이송장치 등 각종 자동화설비·기구의 정상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류를 사용하는 기계·기구등의 설비에는 플로트 스위치를 설치하는 등 유류가 새거나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한 유출유류 방제체계로써 수질오염시 전국사업장을 지휘·감독·지원하고 수습할 수 있는 중앙단위의 수질오염사고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단위사업장별로 별도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수질오염사고는 94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류유출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유류유출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1)유류운송차량의 전복·추락등 (2)유류저장탱크 및 배관설비의 노후·부식등 부실 (3)유류자동이송장치의 고장 또는 조작 실수 (4)유류 관련 시설·차량·기기등의 취급 부주의 (5)기타 유류의 불법 투기등으로 나타났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원 상류 하천 또는 호소에서 유류운송차량이 상수원으로 직접 전복·추락하거나, 저유시설등에서 많은 양의 유류가 유출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키게 될 경우, 급수중단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방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팔당호의 경우,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유류가 다량 유입될 경우 대형 국가재난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